

직장남성의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 연구

林 靖 恩* · 李 明 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Clothing Design Preferences of Men

Jeong-Eun Lim* and Myoung-Hee L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activity, emotional stability, and dominance) and clothing design preferences,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lothing design pre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of men. Subjects for the study were 255 male white-collar workers ranging in ages from twenties to fifties, in Seoul and Kwangju City, Korea.

The men with higher activity of personality preferred the double jacket with 4 buttons, the combination of light color jacket and dark trousers, glen check pattern jacket, herringbone pattern jacket, light beige color dress shirts. The higher the emotional stability, the higher the preferences on diverse patterns such as fine stripe, plaid, hound's-tooth check, and small check pattern. The men with higher dominance preferred dark blue color suit, glen check pattern suit, and necktie of red circle, and disliked the necktie of gray circle.

The men in their 20's and 30's liked the single jacket with 3 buttons, the suit of fine stripe and the necktie of gray circle more than the 40's and 50's did. The middle income group liked herringbone pattern most among three income groups. The higher the men's age and income were, the more they liked the conservative style such as a single jacket with 2 buttons. The men who reside in Seoul liked the suit of gray circle, the jacket and trousers of same color, the patternless jacket, and the patternless suit more than the men in Kwangju. Therefore, the men

in metropolitan area preferred conservative clothing image.

Fine stripe pattern and patternless materials were preferred when men wore jacket and trousers of same color, while glen check pattern was preferred as the pattern of jacket when jacket and trousers of different color. Male white-collar worker liked single jacket more than double jacket, and preferred the dark blue color suit and necktie, patternless suit, fine stripe suit, and the pale blue dress shirts generally.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that the personality of male has influence on the clothing design preferences, and it is possible to infer men's personality by their attire.

I. 서론

의복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상징해 주는 요소로서, 착용자의 가치, 성격, 생활양식 등을 뚜렷이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에게도 의복은 사회적 신분과 직업적인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성인남성들은 그들의 사회생활 내용 중에서 직업생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연령역할에 대한 기대때문에 남성들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좋은 외모를 유지하기 원하며,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게 된다(Horn & Gurel, 1981). 특히 정신노동자들은 육체노동자보다 의복을 더욱 중요시하며, 사회구성의 일원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 남성 의복은 뚜렷한 의복 규범 속에서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착용되는 의복유형도 제한되어 온 실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남성복에서도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성격은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행동패턴이면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나타내므로 성격특성이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되어 왔다. 선행연구(이인자, 1976; 박인미, 1989; Radeloff, 1991)에서 성격특성과 의복 색 및 의복형태 선호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남성을 대상으로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성격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내용은 그다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의복을 중요시하는 직장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광주광역시의 직장남성

을 대상으로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의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며,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남성의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의 성격특성과 스타일, 색, 무늬 선호도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연령, 소득, 거주지)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의복디자인 선호

의복선택에 있어서 디자인에 대한 선호경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환경적인 측면과 그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이나 신체적 특징 등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의복 스타일 선호에 관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재희·정삼호(1995)는 성인 남성은 유행형 재킷보다는 전통적 재킷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이은미, 강혜원(1994)은 20대와 40·50대 모두 싱글정장을 더블정장보다 더 활동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고애란, 강혜원(1983)은 전통형인 싱글양복이 사무직·관리직·전문직의 정신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되며, 젊은층은 캐주얼 재킷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Jackson(1984)은 다양한 남성복 스타일에 따른 의복이미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드라마틱한 스타일(더블, 6단추)의 착용자는 혁신적이고 단호하며, 로맨틱한 스타일(더블, 4단추)의 착용자는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사교적이며, 클래식 스타일(싱글) 착용자는 두드러짐 없는 단순함과 보수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유경숙

(1996)은 연령별 차이에서 30, 40대의 남성은 단추 2개 싱글제킷을 선호하고, 20대 남성은 단추 4개 더블제킷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의복의 색은 개인의 특성을 전달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그의 의복에서 색을 먼저 지각하며, 색에 의해 착용자의 분위기를 인식하게 된다(Lurie, 1991). Chambers(1951)는 적합한 색채의 의복은 개인에게 사회생활에서 알맞은 외모를 가꾸어 주며, 개인의 인성, 성별, 연령을 구별해 주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색채는 정신병까지 유발시킨다고 함으로써 의복의 색 선호성은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은미, 강혜원(1994)은 부드러운 인상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베이지색 싱글정장이 좋으며, 정장 및 넥타이 배색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고애란, 이은미(1994)는 직장상황에서 회사 중역의 위치에 있는 중년 남성이 능력 있고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감색 정장이 좋으며, 더블스타일은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보이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항미, 김재숙(1998)은 남자의 인상차원에 대한 연구에서 감색 의복이 지적이고 예의바르게 보인다고 하였으며, 유경숙(1996)은 남색이 남성적이고 침착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1995)은 감색 신사복은 유사색 배색의 넥타이가 잘 어울리고, 베이지색에는 대비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의복에서 무늬는 구조적인 의복의 선보다 주위를 더 빨리 끌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늬에는 선, 공간, 스타일 그리고 색채라는 디자인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 착시를 일으켜 신체의 결합을 감추거나 장점을 돋보이는 데 효과적이며, 심리적으로 쾌·불쾌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므로 무늬 선택은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과 개성에 맞도록 선택되어야 한다(이호정, 1987). 서미아(1985)는 체형에 따른 무늬 크기의 선호도 연구에서 비만체형의 여성과 보통체형의 여성은 작은 무늬를 가장 좋아하였고, 마른 체형은 중간 크기의 무늬를 좋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큰 무늬는 선호하는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이미경(1984)의 연구에서 20대 여성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무

늬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30·40대 여성은 드레시한 스타일과 점무늬, 꽃무늬 등 우아한 무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길순(1981)의 연구에서는 스포티한 디자인일 경우 세로줄의 줄 무늬와 단색이 선호되었으며, 드레시한 디자인일 경우 전통적인 무늬, 자연적인 무늬, 점무늬가 선호되어 의복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무늬가 다르다고 하였다. 유경숙(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성이 높은 남자는 플레드 무늬의 셔츠를 싫어하나, 여성성의 남자는 플레드 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늬 선호는 연령이나 개인의 특성, 의복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남성을 대상으로 한 무늬 선호도의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남성복의 무늬가 여성복에 비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겠으나, 오늘날에는 남성복의 다양화가 확대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무늬 선호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

성격이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전반을 총칭하는 것이며, 타인과 구별되는 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고, 개인의 적응을 특정 짓는 사고와 정서를 포함한 행동의 독특한 스타일이다(김경희, 1988). 성격특성의 분류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80)는 성격을 9가지로 구분하였고, 황용연(1998)은 성격을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 성취성, 자율성의 7가지로 구분하였다.

성격은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행동패턴이면서 자신의 사고와 정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특성은 의복행동이나 의복선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Ryan(1976)은 성격과 옷차림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은 개성 묘사가 같았으나, 옷을 바꿔 입은 사람은 다르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용모나 얼굴 표정만큼 의복이 성격 판단 시에 중요한 요인이 못된다 하더라도 의복은 분명히 성격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성격의 어떤 측면은 용모보다 의복에서 더 쉽게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을 중심

으로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활동성은 일상생활에서 정력적, 생산적, 능률적이고, 민첩하며, 일을 많이 해내는 인성 특성을 말한다(황용연, 1998). 나수임, 한명숙(1986)은 여고생의 복색 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에서 활동성, 사회성이 클수록 밝은 색을 더 좋아하며 어두운 색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이인자(1976)는 밝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두운 색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실천적이고 결단성이 있으며 구체적 사태를 즐기고 행동적이라고 하였다.

안정성이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회로 에라의 감정에서 극단에 흐르지 않고, 통일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성 특성을 말한다(황용연, 1998). 이인자(1976)는 옷을 선택할 때 옷감을 제일 먼저 고르는 사람은 안정성이 있고 사회성이 높은 반면 색을 먼저 고르는 사람은 안정성이 낮고 사회성도 낮다고 하였다. 이순화(1989)는 정상인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흰색을 선호하고 남색은 싫어하며, 장애자는 안정성이 높을수록 보라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지배성이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 경쟁적, 공격적이고 완강하며 집단 활동에 있어서 통솔력과 주체성을 나타내는 인성 특성을 말한다(황용연, 1998). Pearson(1950)은 의복 색의 선호에 있어서 넓은 범위의 색을 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영미(1989)는 지배성이 강할수록 자신의 의복에 대해 관심이 많고 미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박광희(1984)는 지배성이 높은 사람은 집단에서 지도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복에 있어서 타인과 다른 좀 더 개성적인 의복을 중시하며 자신의 의복에 대한 평가도 높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의복디자인 선호, 성격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을 포함하였다. 의복디자인

선호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킷 스타일, 신사복 무늬, 신사복·와이셔츠·넥타이 색에 대한 선호를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재킷 스타일 선호는 싱글정장과 더블정장으로 나누어, 단추 2개 싱글재킷, 단추 3개 싱글재킷, 단추 4개 더블재킷, 단추 6개 더블재킷을 선정하여 그림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신사복 무늬는 가는 줄 무늬, 글렌 체크, 플라드, 하운드 투스, 작은 체크, 헤링본 무늬의 6가지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측정하였으며, 무늬 없는 단색에 대한 선호도를 포함하였다. 신사복 색 선호는 검정색, 회색, 갈색, 밤색, 베이지색 계통의 5가지 색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하였고, 재킷과 바지 색 배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와이셔츠의 색은 흰색, 연한 하늘색, 청색, 연한 분홍색, 연한 베이지색, 연한 회색으로 정하였고, 넥타이 색은 빨간색, 갈색, 녹색, 갈색, 회색 계통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성격특성 검사는 황용연(1998)의 표준화 인성 진단검사 중에서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의 3가지 특성을 택하였다. 각 특성별로 15개 문항씩 총 45개의 진위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연령, 가정의 월평균 총 소득, 거주지, 학력, 직업을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광주광역시의 직장남성 2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99년 3월에서 4월이었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거주지는 서울이 65.1%, 광주가 34.9%였고, 연령은 20대가 27.1%, 30대가 43.1%, 40·50대가 29.8%였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7.5%, 대졸이 74.5%, 대학원졸이 18%였다. 직업은 교사가 36.1%, 일반사무직이 63.9%였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30.2%, 150~250만원 미만이 43.5%, 250만원 이상이 26.3%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포, 직률상관관계,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

검증, 공변량분석, t검증, paired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

1) 성격특성과 재킷 스타일 및 신사복 색 선호도의 관계

성격특성과 재킷 스타일 및 신사복 색 선호도와의 관계를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활동성과 단추 4개 더블재킷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활동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단추 4개 더블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고애란, 이은미, 1994)에서 더블

<표 1> 성격특성과 재킷 스타일 및 의복색 선호도와의 관계 (N=255)

의복변인		성격특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재킷 스타일	단추 2개 싱글재킷	.01	.03	-.08
	단추 3개 싱글재킷	-.03	-.11*	-.08
	단추 4개 더블재킷	.11*	.12*	.07
	단추 6개 더블재킷	.10	.04	.10
신사복 색	검정색 계통	.02	-.03	.04
	회색 계통	-.05	-.09	-.07
	감색(짙은 남색) 계통	.08	-.03	.12*
	밤색 계통	.03	.00	-.01
	베이지색 계통	.06	.07	-.06
재킷 및 바지 색 배합	같은 색 상하의	-.03	.02	-.04
	유사배색의 상하의	-.07	.04	.03
	대비배색의	.06	.05	.00
	다른 색 상하의			
	짙은색 상의와 연한색 하의의 배합	.06	-.02	.04
	연한색 상의와 짙은색 하의의 배합	.17**	-.06	-.05

* p<.05, ** p<.01

스타일이 개성적이고 활동적으로 보인다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안정성은 단추 3개 싱글재킷과 부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단추 4개 더블재킷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안정성이 높을수록 단추 3개 싱글재킷은 싫어하고, 단추 4개 더블재킷을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 지배성은 재킷스타일 선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활동성 및 안정성은 신사복 색 선호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지배성은 감색 계통의 선호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지배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감색 계통 신사복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감색이 능력 있고 권위적으로 보이는 색이므로(고애란, 이은미, 1994) 지배성이 높은 남성이 감색 계통의 신사복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활동성은 연한색 상의 및 짙은 색 하의의 배합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활동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연한 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의 배합을 선호하였다. 즉 연한 색 상의와 짙은 색 하의의 배합은 비교적 캐주얼하면서도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활동성이 높은 남성의 적극적인 생활양식이 의복 선호에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안정성 및 지배성은 재킷과 바지 색 배합 선호도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2) 성격특성과 신사복 무늬 선호도의 관계

성격특성과 신사복 무늬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하 다른 소재 착용시 활동성과 글렌 체크 무늬 및 해링본 무늬 재킷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나타내어, 활동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글렌 체크 무늬 재킷과 해링본 무늬 재킷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안정성은 가는 줄 무늬 및 플레드 무늬 재킷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가는 줄 무늬 재킷과 플레드 무늬 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성은 글렌 체크 무늬 재킷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지배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글렌 체크 무늬를 선호하였다.

상하 같은 소재 착용시에 활동성은 신사복 무늬 선호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안정성은 하운드 투스 및 작은 체크 무늬와 유의한 정적 상관

<표 2> 성격특성과 무늬 선호도와와의 관계 (N=255)

의복변인		성격특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상하 다른 소계 착용시 재킷 무늬	가느 줄 무늬	.04	.15**	-.08
	글렌 체크	.14*	.08	.17**
	플래드 무늬	.06	.13*	.09
	하운드 투스 체크	.01	.06	.01
	작은 체크	.05	.03	.05
	해링본 무늬	.12*	.00	.08
	무늬 없는 단색	.04	-.04	.04
상하 같은 소계 착용시 신사복 무늬	가느 줄 무늬	-.01	.02	-.02
	글렌 체크	.07	.04	.14*
	플래드 무늬	.02	.08	.07
	하운드 투스 체크	.06	.19**	.04
	작은 체크	.05	.11*	.09
	해링본 무늬	.05	-.02	.06
	무늬 없는 단색	.01	-.05	.07

*p<.05, **p<.01.

관계를 보였다. 즉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하운드 투스와 작은 체크 무늬를 선호하는 편이었다. 지배성은 글렌 체크 무늬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지배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상하 글렌 체크 무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다양한 무늬를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선행연구(Pearson, 1950)에서 다양한 색을 택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었다. 지배성이 높을수록 글렌 체크 무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글렌 체크가 신사복 무늬로서 비교적 중후한 느낌을 주므로 지배성이 높은 남성이 글렌 체크 무늬를 선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3) 성격특성과 와이셔츠 및 넥타이 색 선호와의 관계

성격특성과 와이셔츠 색 및 넥타이 색 선호도와와의 관계를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활동성은 연한 베이지색 와이셔츠와 정적 상관

<표 3> 성격특성과 와이셔츠 색 및 넥타이 색 선호도와와의 관계 (N=255)

의복변인		성격특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
와 이 셔 츠 색	흰색	-.01	.03	-.03
	연한 하늘색	.04	.04	.06
	청색	.10	-.03	.08
	연한 분홍색	.02	.01	.09
	연한 베이지색	.14*	.04	.04
	연한 회색	-.00	-.01	-.07
넥 타 이 색	빨간색 계통	.08	.05	.11*
	갈색 계통	.02	-.01	.00
	녹색 계통	.09	-.04	-.05
	갈색 계통	.07	.11*	.00
	회색 계통	-.05	-.09	-.15**

*p<.05, **p<.01

관계를 보여 활동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연한 베이지색 와이셔츠를 선호하였다. 이것은 활동성이 높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므로 저채도의 유색 와이셔츠의 착용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안정성과 지배성은 와이셔츠 색 선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활동성과 넥타이 색 선호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안정성은 갈색 계통 넥타이 색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안정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갈색 계통 넥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성은 빨간색 계통 넥타이 색 선호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색 계통의 선호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배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빨간색 계통 넥타이를 선호하였고, 회색 계통의 넥타이를 싫어하는 편이었다. 이것은 빨간색이 강한 이미지와 지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이므로(유경숙, 1996) 지배성이 높은 남성이 빨간색 넥타이를 선호하며, 회색은 평범한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지배성이 높은 남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회색은 능력 없게 지각되며 소극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한 내용(조필교, 정혜민, 1998)과 본 연구에서 지배성이 높은 남성들이 회색 계통의 넥타이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은 유사한 맥락이었다.

4) 신사복 상하 배합에 따른 무늬 선호도의 차이

부가적으로 신사복의 상하 배합에 따른 무늬 선호도의 차이를 paired t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하 다른 소재 착용시 재킷 무늬와 상하 같은 소재 착용시 신사복 무늬 선호도의 차이 (N=255)

무늬	상하 다름	상하 같음	t
가는 줄 무늬	3.67	3.76	-2.05*
글렌 체크	3.12	3.01	2.20*
플래드 무늬	2.71	2.60	2.45*
하운드 투스 체크	2.72	2.54	3.25**
작은 체크	3.12	3.03	1.68
해링본 무늬	3.10	3.13	-.55
무늬 없는 단색	3.74	3.89	-2.96**

*p<.05, **p<.01.

<표 4>에서 가는 줄 무늬는 상하 배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상하 다른 소재보다 같은 소재를 착용할 때 가는 줄 무늬를 더 선호하였다. 글렌 체크, 플래드, 하운드 투스 체크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상하 같은 소재보다 다른 소재를 착용할 때 모두 더 선호하였다. 무늬 없는 단색은 상하 같은 소재를 입을 때 더 선호하였다.

즉 직장남성은 상하 같은 소재를 착용할 때 가는 줄 무늬와 무문직을 선호하였고, 글렌 체크, 플래드, 하운드 투스 체크는 상하 같은 소재보다는 다른 소재를 착용할 때 재킷으로 선호하는 무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성인 남성은 신사복 소재로서 무문소재를 가장 선호하였고, 무늬 있는 것 중에서는 가는 줄 무늬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플래드와 하운드 투스 무늬의 선호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

1)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

연령에 따른 신사복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단추 2개 싱글재킷과 단추 3개 싱글재킷의 선호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단추 2개 싱글재킷은 40·50대가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에 30대, 20대의 순이었다. 단추 3개 싱글재킷의 경우는 20대가 가장 선호하였고 30대와 40·50대순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단추 2개 싱글재킷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볼 때 싱글재킷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았다. 이는 싱글재킷이 정신노동자에 의해 넓게 수용된다고 한 선행연구(고예란, 강혜원, 1983)와 성인 남성은 유행형 재킷 스타일보다 전통형 재킷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한 선행연구(김재희, 정삼호, 1995) 내용과 일치하였다. 이것은 남성들이 직장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재킷 스타일을 두드러지고 혁신적인 더블 스타일보다 무난하고 단순하며 보수적인 싱글 스타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연령에 따른 신사복 색 선호를 보면 밤색 계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40·50대 직장남성이 20대와 30대보다 밤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색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감색 계통의 신사복은 직장남성에게 깔끔하고 단정하며 분명한 인상을 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선행연구(고예란, 이은미, 1994)에서 직장상황에서 능력 있고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 감색 정장이 좋으며, 감색은 예의 바르게 보인다(이항미, 김재숙, 1998)고 한 내용으로 볼 때, 직장남성들은 자신을 능력 있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감색을 자주 착용함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상하 다른 소재 착용시 글렌 체크 무늬 재킷은 연령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40·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글렌 체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글렌 체크 무늬가 중후하면서 전통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40·50대가 재킷 무늬로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

<표 5> 연령에 따른 신사복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

의복변인		연령		40·50대 (n=76)	F
		20대 (n=69)	30대 (n=110)		
재킷 스타일	단추 2개 싱글재킷	3.19(c)	3.59(b)	3.96(a)	16.17**
	단추 3개 싱글재킷	4.32(a)	4.01(b)	3.37(c)	24.47**
	단추 4개 더블재킷	2.57	2.80	2.84	1.82
	단추 6개 더블재킷	2.16	2.15	1.96	1.02
신사복 색	검정색 계통	3.87	3.74	3.68	1.03
	회색 계통	3.41	3.45	3.53	.37
	감색 계통	3.86	3.77	3.75	.27
	밤색 계통	2.80(b)	2.81(b)	3.13(a)	3.94*
	베이지색 계통	2.88	2.88	3.01	.51
상하 다른 소재 착용시 재킷 무늬	가는 줄 무늬	3.77	3.68	3.55	1.11
	글렌 체크	2.96(b)	3.07(ab)	3.34(a)	3.29*
	플래드 무늬	2.64	2.65	2.86	1.63
	하운드 투스 체크	2.58	2.76	2.78	.97
	작은 체크	3.00	3.16	3.17	1.12
	해링 본 무늬	3.13	3.08	3.11	.06
	무늬 없는 단색	3.90	3.68	3.68	1.26
상하 같은 소재 착용시 신사복 무늬	가는 줄 무늬	3.93(a)	3.84(a)	3.51(b)	4.62*
	글렌 체크	3.04	2.90	3.13	1.70
	플래드 무늬	2.54(b)	2.49(b)	2.80(a)	3.60*
	하운드 투스 체크	2.42	2.56	2.61	.89
	작은 체크	2.96	3.10	3.00	.67
	해링 본 무늬	3.07	3.17	3.11	.29
	무늬 없는 단색	3.94	3.89	3.84	.21

* $p < .05$, ** $p < .01$, 문자 a, b, c 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05)

다. 상하 같은 소재 신사복을 입는 경우에는 가는 줄 무늬와 플래드 무늬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하 가는 줄 무늬는 20대와 30대가 40·50대보다 더 선호하였고, 플래드 무늬는 20대와 30대가 40·50대보다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와이셔츠 색과 넥타이 색 선호도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령에 따른 와이셔츠 색 선호에서 연한 분홍색은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20대와 30대가 40·50대보다 연한 분홍색 와이셔츠를 더 선

호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직장남성은 와이셔츠 색 중에서 연한 하늘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넥타이 색 선호는 감색 계통과 회색 계통의 경우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는데, 감색 계통은 40·50대에서 가장 선호하였으며, 회색 계통은 20대가 가장 선호하였고, 40·50대는 회색 계통의 넥타이를 가장 싫어하였다. 이것은 넥타이와 같은 부속품은 회색일 경우에 더욱 나이 들어 보이므로 40·50대가 싫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볼 때 성인 남성들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색 계통의 넥타이를 가장 선호하였다.

<표 6> 연령에 따른 와이셔츠 및 넥타이색 선호도의 차이

의복변인		연령			F
		20대 (n=69)	30대 (n=110)	40·50대 (n=76)	
와이셔츠 색	흰색	3.35	3.53	3.61	1.59
	연한 하늘색	3.83	3.88	3.72	.90
	청색	3.62	3.33	3.29	2.97
	연한 분홍색	3.42(a)	3.15(ab)	3.03(b)	3.35*
	연한 베이지색	3.61	3.54	3.47	.51
	연한 회색	3.49	3.35	3.62	1.80
넥타이 색	빨간색 계통	2.84	2.92	2.83	.24
	감색 계통	3.67	3.64	3.54	.58
	녹색 계통	2.72	2.74	2.74	.01
	갈색 계통	2.93(b)	2.98(b)	3.38(a)	7.90**
	회색 계통	3.32(a)	3.07(ab)	2.80(b)	5.79**

*p<.05, **p<.01, 문자 a,b,c 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05)

이것은 신사복 색에서 감색을 선호한 것과 같은 결과로서 남성들이 의복이나 넥타이에서 모두 보수적인 이미지의 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재킷 및 바지 색 배합의 선호도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대비배색의 다른 색 상하의 배합(F=6.51, p<.01)의 경우와 짙은색 상의 및 연

한색 하의 배합(F=3.76, p<.05)의 선호도였다. 대비배색의 다른 색 상하의는 40·50대 직장남성이 20대와 30대보다 더 선호하였고, 짙은색 상의 및 연한색 하의의 배합도 40·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하 다른 색을 배합한 옷차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표 7> 연령통제 후 소득에 따른 재킷 스타일 및 신사복 색 선호도의 차이

변량원		소득				연령 (공변인) F
		150만원 미만 (n=77)	150~250만 원미만 (n=111)	250만원 이상 (n=67)	F	
재킷 스타일	단추 2개 싱글 재킷	3.23(b)	3.73(a)	3.78(a)	5.22**	21.94**
	단추 3개 싱글 재킷	4.14	3.87	3.67	1.62	47.45**
	단추 4개 더블 재킷	2.62	2.82	2.78	.48	2.21
	단추 6개 더블 재킷	2.17	2.05	2.07	.15	.80
신사복 색	검정색 계통	3.78	3.81	3.64	1.00	2.45
	회색 계통	3.27(b)	3.55(a)	3.54(a)	3.11*	.00
	감색 계통	3.91	3.77	3.69	.69	1.64
	밤색 계통	2.82	3.05	2.76	2.28	5.76*
	베이지색 계통	2.90(ab)	2.79(b)	3.16(a)	3.40*	1.58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05)

직장남성은 상하 다른 색 배합보다는 같은 색 배합의 신사복을 훨씬 더 선호하였다.

2) 소득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

연령을 통제한 후 소득에 따른 재킷 스타일과 신사복 색 선호도의 차이를 공변량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직장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높을 것으로 사려되어 본 조사에서는 순수하게 소득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령을 통제하였다.

단추 2개 싱글재킷의 선호는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집단과 150~250만원 미만 집단에서 선호하였고 소득이 낮은 집단은 선호하지 않았다. 즉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중간 이상의 집단이 단추 2개 싱글재킷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계층이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므로 전통적인 단추 2개 싱글재킷을 더 선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사복 색 선호도에서는 회색 계통과 베이지색 계통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회색 계통의 신사복은 중간 소득 이상의 계층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더 선호하였고, 베이지색 계통은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이 가장 선호하였다. 이것은 베이지색은 비교적 고명도의 밝은 색으로서 드라이클리닝을 자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복 관리비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고소득층이 선호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밖에 신사복 무늬 선호도에 대한 소득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통제한 후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헤링본 무늬만이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헤링본 무늬는 상하 다른 소재 착용시와 상하 같은 소재 착용시 모두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6.51, p<.01; F=4.82, p<.01), 소득이 150~250만원 미만인 중간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헤링본 무늬를 가장 선호하였다.

연령을 통제한 후 소득에 따른 재킷 및 바지 색 배합, 와이셔츠 색, 넥타이색 선호도의 차이를 공변량분석으로 조사하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거주지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

서울 및 광주의 거주지에 따른 신사복 색, 재킷 및 바지 색 배합의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색 계통의 신사복 선호는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광주 직장남성보다 서울 직장남성들이 회색 계통의 신사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과 바지 색 배합 중에서는 같은 색 상하의가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서울의 남성이 광주 남성보다 같은 색 상하의 배합을 더 선호하였다. 이것은 서울의 직장남성들이 회색이나 상하 동색의 신사복을 더 선호함으로써 광주 남성보다 포말한 이미지의 옷차림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거주지에 따른 신사복 무늬 선호도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한 결과, 무늬 없는 단색만이 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하 다른 소재 착용시 재킷 무늬와 상하 같은 소재를 착용시 신사복 무늬에서 모두 서울 직장남성이 광주 남성보다 무문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t=3.24, p<.01; t=2.58, p<.05). 이것은 서울의 직장남성이 광주 남성보다 같은 색 상하의를 더 선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표 8> 거주지에 따른 신사복 색 선호도의 차이

의복변인		거주지	서울 (n=166)	광주 (n=89)	t
신사복 색	검정색 계통		3.74	3.79	-.43
	회색 계통		3.58	3.25	3.01**
	감색 계통		3.77	3.82	-.41
	밤색 계통		2.95	2.82	1.11
	베이지색 계통		2.89	2.99	-.88
재킷과 바지색 배합	같은 색 상하의		4.31	4.06	3.00**
	유사배색의 상하의		3.24	3.01	1.90
	대비배색의 다른 색 상하의		2.84	2.65	1.48
	같은 색 상의와 연한 색 하의의 배합		2.67	2.71	-.33
	연한 색 상의와 같은 색 하의의 배합		2.89	2.87	.16

**<.01

거주지에 따른 재킷 스타일, 와이셔츠 색, 넥타이 색 선호도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하였으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의 성격특성과 의복디자인 선호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장남성은 활동성이 높을수록 단추 4개 더 붙재킷, 연한색 상의와 짙은색 하의의 배합, 글렌 체크 무늬 재킷, 헤링본 무늬의 재킷, 연한 베이지색 와이셔츠 등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활동성이 높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지니므로 캐주얼한 이미지를 지닌 연한색 상의와 짙은색 하의의 신사복과 유색 와이셔츠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본다.
2. 안정성이 높을수록 단추 4개 더붙재킷, 가는 줄 무늬와 플레드 무늬 재킷, 하운드 투스 체크와 작은 체크 무늬 신사복을 선호하였으며, 갈색 계통 넥타이를 선호하였고, 단추 3개 싱글재킷을 싫어하였다.
3. 지배성이 높을수록 직장남성은 감색 계통과 글렌 체크 무늬 신사복, 빨간색 계통 넥타이를 선호하였고 회색 계통 넥타이를 싫어하였다. 이것은 지배성의 성격특성이 의복에 반영되어 지배성이 높을수록 능력 있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감색 계통이나 빨간색 계통을 선호하고 평범한 회색 계통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사복 상하 배합에 따른 무늬 선호도를 볼 때 가는 줄 무늬와 무문직은 상하 같은 소재를 착용할 때 더 선호되었고, 글렌 체크, 플레드, 하운드 투스 체크는 상하 다른 소재를 착용할 때 재킷 무늬로 선호되는 편이었다.
5. 연령별 차이에 있어서 단추 2개 싱글재킷은 40·50대가 20대와 30대보다 선호하였고, 단추 3개 싱글재킷은 20대가 가장 선호하였다.

40·50대는 밤색 계통의 신사복, 대비배색의 상하의, 글렌 체크 무늬 재킷, 플레드 무늬 신사복, 갈색 계통 넥타이를 다른 연령층보다 선호하였다. 가는 줄 무늬 신사복과 회색 계통 넥타이는 20대와 30대가 40·50대보다 더 선호하였다. 40·50대가 20대, 30대보다 대비배색이나 무늬 있는 소재의 신사복을 더 선호한 것은 성인 남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사복 디자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소득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 단추 2개 싱글재킷과 회색 계통 신사복은 소득이 높은 계층과 중간 계층이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더 선호하였고, 베이지색 계통 신사복은 소득이 높은 계층이 가장 선호하였다. 헤링본 무늬는 중간 소득 계층에서 가장 선호하였다.
7. 서울의 직장남성은 광주 남성보다 회색 계통 신사복, 같은 색 상하의, 무늬 없는 단색 재킷, 상하 무늬 없는 단색 신사복을 선호함으로써 수도권의 큰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남성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다.
8. 일반적인 의복디자인 선호도 경향을 보면 사무직 직장남성은 싱글재킷, 같은 색 상하의 신사복, 감색 신사복을 선호하였고, 신사복 소재로는 무문 소재와 가는 줄 무늬를 특히 선호하였다. 또한 하늘색 와이셔츠와 감색 계통의 넥타이를 선호함으로써 침착하고 보수적인 의복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직장남성은 안정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무늬를 선호하였으며, 지배성이 높을수록 감색 계통 신사복과 빨간색 계통 넥타이를 선호하였다. 또한 연령과 소득이 높을수록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거주지가 수도권인 직장남성이 더 보수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의복디자인은 성격특성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선호되고 있으며, 성격은 의복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특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의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남성들에게 확대 해석하는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의 직장남성을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의복디자인의 선호를 조사하여야 하며, 개인의 체형이나 가치관에 따라서도 다양한 의복이 선호될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사복뿐만 아니라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 선호도를 폭 넓게 조사함으로써 남성의 의복행동을 이해하는 데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애란, 강혜원,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동제 및 신체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7(2), pp.45-52, 1983.
- 고애란, 이은미, 직장상황에서 중년남성의 정장차림이 직업특성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논집, 8, pp. 21-30, 1994.
- 고애란, 이은미, 홍희숙, 남성정장의 의복단서와 관찰자의 자기 모니터링이 직업적 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pp.211-222, 1995.
- 김경희, 성격, 서울: 민음사, p.12, 1988.
- 김재화, 정삼호, 유행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남성의 의복태도와 성격태도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1), pp.129-141, 1995.
- 나수임, 한명숙, 여고생의 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1), pp. 37-45, 1986.
- 박광희,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pp.13-19, 1984.
- 박길준, 직물문양의 선호와 내향성, 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박인미, 여고생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성격 및 사회계층과의 상관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미아, 의복의 무늬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한국생활과학연구, 3, pp.207-226, 1985.
- 유경숙,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미경, 성인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표준화 인성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1980.
- 이순화, 정상인과 신체장애자의 성격특성이 의복행동 및 의복색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영미, 여고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이은미, 강혜원,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197-210, 1994.
-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pp.69-83, 1976.
- 이향미, 김재숙,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pp.312-320, 1998.
- 이호정, 복식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p.98, 116-118, 1987.
- 조필교, 정혜민,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p.79-80, 1998.
- 황용연, 표준화 인성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98.
- 황용연, 표준화 인성진단검사,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98.
- Horn, M. J. & Gurel, L. M., *The Second Skin :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 p.195, 1981.
- Chambers, B. G., *Color and Design*. New York: Prentice-Hall Inc., pp.332, 456, 1951.
- Jackson, C., *Color for Men*. New York: Ballantine Books, pp.175-186, 1984.

- Molloy, J. T.,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Book, Inc., pp.81-86, 1976.
- Lurie, A., The language of clothes, *Human Ecology Forum*, 19(3), pp.32-34, 1991.
- Pearson, L. H., Teen-Agers' preferences in clothes. *Journal of Home Economics*, 42 (10), pp.801-802, 1950.
- Radeloff, D. J.,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pp. 59-67, 1991.
-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pp.12, 21, 1976.